

RDA Interrobang (140호)
인터넷(www.rda.go.kr)에서
컬러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

집필: 이동현 (063-238-0809)
조우석

2015 주목해 불 농산업 키워드

2015. 1. 21. (제140호)

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
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목 차

요 약

- I. 트렌드와 대외환경 1
- II. 2015 주목해 불 농산업 키워드 5



RDA Interobang (No. 140)

2015 Agriculture trends

Lee Dong Hyun · Cho Woo Suk

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

RDA 인테러뱅 제140호 2015 주목해 볼 농산업 키워드 2015. 1. 21. 발간

이동현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agriecon@korea.kr

조우석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phyto@korea.kr

《 요약 》

올해도 한중 FTA의 발효, 쌀 관세화, TPP 참여의 여부는 어김없이 농업과 농촌을 괴롭힐 것이다. 그러나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인한 낮은 수준의 유가와 안정적인 국제 곡물가의 흐름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. 한편 환율 변동은 농식품의 동남아 수출에는 긍정, 일본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.

올해 주목해 볼 농산업 키워드와 그 면면을 살펴보면,

- ① **행복을 주는 슬로푸드**: 만성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단이 차려지는 식문화가 본격화 될 것
- ② **로컬·유기농으로 차려지는 도시락**: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로컬·유기농 상차림한 도시락 사업이 활기를 띠 것
- ③ **프리미엄 디저트로 대접받는 우리 농산물**: 디저트 시장의 지속적 성장 속에서 고급화를 위하여 국내산을 고집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될 것
- ④ **파치, 못난이들의 반란**: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라, 식료품비 마저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B급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
- ⑤ **행복을 주는 농업(Agro-healing)**: 치유농업이 현장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마을 기업 등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
- ⑥ **에그리테인먼트(Agritainment)의 진화**: 농업과 오락이 만나, 농촌 예술, 팜 파티, 팜 페스티벌 등으로 도시민의 휴식과 재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
- ⑦ **팜핑(농가캠핑, farmping)이라 불러다오**: 글램핑, 아빠의 육아 참여, 농촌 관련 TV 예능의 영향으로 농가체험과 캠핑을 동시에 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
- ⑧ **자리를 잡아가는 귀농·귀촌**: 귀농·귀촌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품질도 높아지고, 희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
- ⑨ **푸드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로컬푸드**: 신선한 지역 농산물의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, 안전한 가공식품과 요리(레스토랑)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
- ⑩ **다시 세(勢)를 확장하는 도시농업**: 도시의 삭막한 이미지를 없애고,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복지 차원의 접근이 많아질 것
- ⑪ **ICT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**: 유수의 이동통신사의 참여와 정부의 노력으로 농장에서 무인자동화와 '스마트 팜'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할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.

I. 트렌드와 대외 환경

2011~2014 트렌드 요약

- 2011~2014년까지 해마다 선정해온 농산업트렌드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다른 흐름과 합쳐지거나 세분화되면서 계속 유지

2011년 트렌드

- ▷ FTA, 애그리비즈니스(Agribusiness), 농업과 소셜네트워크가 만나는 스마트팜, 귀농과 다문화, 안전한 먹을거리,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, 복고, 부산물(Waste) 등

- 현재 지속된 트렌드로는 FTA, 애그리비즈니스, 귀농 등이 있으며 다른 키워드들은 타산업의 트렌드와 결합하여 새롭게 변신
 - 생산자와 소비자연결, 복고 등은 농산물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신사업 창출과 연계되었고, 부산물은 틈새상품으로 편입

2012년 트렌드

- ▷ FTA, 건강에 대한 관심, 치유농업,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, 애그리비즈니스, 다문화, 스마트한 소비문화,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

- FTA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촌은 농산물의 생산지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부각
 -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안전농산물 단계를 넘어 기능성 농산물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애그리비즈니스로 탄생

2013년 트렌드

- ▷ 교역, 힐링, 소비문화, 공유경제, 나눔문화, 지자체의 성숙, 농업을 위협하는 상시적이며 잠재적인 위험(가축질병, 기후변화 등)

- 나눔과 공유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웰빙 다음으로 부각된 힐링은 서비스업 뿐 아니라 농업에도 영향

- 똑똑함을 넘어 현명해진 소비문화는 공정무역, 지역나눔 등으로 확대되면서 농산물 소비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계속 진화 중

2014년 트렌드

▷ 농촌은 치유, 교육, 귀농인과 융합, 농촌 관광 등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농업은 새로운 소비트렌드가 반영된 새로운 비즈니스가 증가

- 2013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의 재인식은 전통문화, 건강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광, 휴양 등 농업형 서비스업의 탄생을 예고
 - 대두된 소비트렌드로는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, 1~2인 가구의 증가, 복고와 틈새 상품의 등장 등이 꼽혔었음
- 2015년에도 중요한 트렌드는 유지되면서 새롭게 등장했던 트렌드들은 사회·경제 환경변화 반영, 다른 트렌드와의 융합 등을 통해 진화
 -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흐름으로 시장개방(교역), 애그리 비즈니스, 귀농, 건강(힐링) 등이 예상
 - 애그리비즈니스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건강, 힐링 등을 계속 반영 하면서 농산업의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
 - '11년 이전부터 시작된 큰 흐름들은 '12~'13년 농업이라는 틀 안에서 점차 모양을 갖추고 2014년에는 성숙되는 분위기
 - 올해를 아우르는 한 단어는 '결속(chain)'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트렌드 간 연결이 강화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될 전망
 - 예를 들면 도시농업은 로컬푸드, 귀농귀촌, 식량안보, 기후변화 등의 키워드들과 연결이 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큰 틀로 자리 잡을 듯
 - 본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지만, 2~3년 이내에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인구고령화, 다문화, 기후변화들이 될 것

2015년 농업을 둘러싼 사회·경제적 여건

- (시장 개방) 한중 FTA 발효, 쌀 관세화, TPP 참여의 파고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농업·농촌을 괴롭히게 될 것
 - 한중 FTA는 '14년 11월 타결 후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개방 폭보다는 '대중국 시장 개방'이라는 상징성이 더 클 것
 - 채소, 과일, 특용작물, 육류 등 대부분에서 대폭적인 개방을 피할 수 있었으나 가공식품(김치, 조미료)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
 - 쌀 관세화는 그동안 의무수입물량만으로 들어오던 외국산 쌀이 관세 513%를 적용하여 들어오는 형태가 될 것
 -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현재 의무수입물량(TRQ)로 들어오던 수준 이상으로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
 - 그러나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쌀 시장까지 개방이 되면서 더 이상 개방 품목에 대한 마지노선은 없다는 불안감이 자리할 것

DDA, FTA는 무엇이 다르고, TPP는 또 뭘까?!

▷ WTO(세계무역기구)에서 많은 나라들의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(관세를 낮추기)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다자간 협상이라 부르며 DDA가 대표적인 것

- 다자간 협상은 한 번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므로 개방 수준을 결정할 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간 협상(FTA)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음
- TPP는 FTA와 DDA를 잘 버무린 다자간 협상으로 범위는 가입국에 한정

* '05년 6월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칠레,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발

-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는 미국,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도 가입을 고려 중
 - 관세철폐와 투자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하며, 농산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('14.4.8, GSnJ)
 - * TPP 참여국들은 우리나라 총 농식품 수입액 및 무역적자의 46%를 차지할 만큼 농식품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

- **(저성장)**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인해 낮은 경제성장률, 낮은 수준의 유가와 안정적인 국제 곡물가의 행진이 계속될 것
 -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추정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3.4~3.9% 수준에 머무를 전망('14, 한국은행, 한국경제研, KDI)
 -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 등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상승이 예상되기는 하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
 - 원유 도입가격은 공급과잉 및 수요 감소로 '14년 102달러 수준이던 것이 올해에는 67달러(달러/배럴)에 머물 것('14, 한국은행)
 -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농가들의 유류비 부담이 감소
 - 국제곡물가격은 기상호조 등으로 옥수수, 콩의 생산량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고,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('14.12, KREI)
 - '15년 1분기의 곡물 수입단가(전 분기 대비)는 식용은 2.4%, 사료용은 10.1% 하락할 것으로 예상

- **(환율)** 올해 원·달러는 상승, 원·엔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('14, 한국경제研, LG研, 대신研, 포스코 경영研)
 - 농산물의 수출과 관련해 볼 때,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는 동남아 수출은 파란 불, 대일본 수출은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전망
 - 원·달러 환율은 달러당 1,080원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여, 동남아(말레이시아, 홍콩, 싱가포르, 필리핀) 수출이 호조를 띠 것
 - * '14년 우리나라는 동남아에 대한 딸기, 단감, 배의 수출 증가로 '11년 이후 4년 연속 10억 불 이상의 기록을 달성('15.1.23, 농촌여성신문)
 - 원·엔 환율은 평균 893원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, 대일본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가가 쉽지 않을 것

Ⅱ. 2015 주목해 볼 농산업 키워드

행복을 주는 슬로푸드!

- 불투명한 미래와 희미해지는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들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을 위로하는 농산물이 인기를 끌게 될 것
 -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도 퇴색('14.12, 마크로밀엠브레인)
 - 국민의 62%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으며, 83%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
 - 사람들과의 일체감, 더불어 산다는 느낌, 남들과의 친밀감도 '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
- * 우리나라의 20대들의 행복지수는 63.1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낮음








우울증에는 '약'보다 '건강한 식단'?!

▷ 항우울제 보다 자연 식단이 더 효과가 높다는 사실과 정크 푸드 식단을 옛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입증('13, NYRnaturalnews.com)

- 과일, 채소, 견과 및 콩류 등 엽산, 오메가 3 지방산과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사를 하는 경우에 우울증이 감소하며,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항우울제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함('13, Sanhueza C.)
- 평균에 비해, 정크푸드, 가공육, 초콜릿, 튀긴 음식, 정제된 곡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우울감은 58% 이상 높았고, 과일, 채소, 생선 등을 많이 먹은 군(群)은 우울감이 26% 낮았음('09, Tasnime N. Akbaraly)

- 자살률은 OECD 34개국 중 10년 연속 1위이나, 정작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
 - 국민의 77.2%가 살면서 '죽고 싶다'는 생각을 해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경험('14.12, 마크로밀엠브레인)
 - 정작 직장인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7%에 머물며 선진국(호주 26%, 캐나다 21%, 유럽 7개국 20%)에 비해 매우 낮음

- *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실정과 비교해 볼 때, 사회적 편견이나 직장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것('14, 대한신경정신의학회)
- 명상과 야외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를 병행하면서, 만성적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식문화가 본격화될 것
- * 리더스 다이제스트(Reader's Digest)에서는 우울증 개선 및 엔도르핀(endorphins) 분비 촉진에 효과가 높은 농산물들을 소개('15)

현미 메밀 소고기 계란				
우유 땅콩 인삼 고추				

로컬·유기농으로 차려지는 도시락

- 도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팍팍해지면서 점심 도시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
- 도시락 전문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나 안전성 우려도 큼('14, 마크로밀엠브레인)
 - 직장인의 약 70%가 도시락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, 이용자 10명 중 4명은 꾸준히 도시락을 이용하는 중
 - * '집에서 싸 갖고 다니기(41%)'보다는 '판매되는 제품을 구입(62%)'하는 편
 - 그러나 시중에 판매하는 도시락을 '믿고 먹을 수 있다'는 응답은 12.6%에 불과하여, 제품의 위생 상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

- 점심값 부담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도시락의 구입의향(45%)은 높아질 것('14, 마크로밀엠브레인)

한 눈에 보는 우리나라 도시락 시장?!

▷ '13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41만 4천 개의 도시락이 판매되어 6,192억 원의 매출을 기록('14, 식품의약품안전처)

- '13년 현재 업체 수는 1,137개소, 15,636명의 종사자 수를 기록 중
- 우리나라 식품산업 전체 매출액(54조 원)의 1% 수준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'08년 이후 11.4%에 이를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

□ 향후 점심 도시락에서 '로컬·유기농 상차림'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, 이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

- 대구의 도시락 공동 브랜드 '마메모메'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던 마을기업 6곳과 사회적기업 1곳이 모여 만든 합작품

- 참여하는 마을 기업은 곰네들, 안심협동조합, 생명살림연대협동조합, 농부장터, 푸른평화생협, 내마음은 콩밭 등

* 식재료의 공급은 마을기업 5곳이, 주문 및 조리배달은 사회적기업인 휴먼피에타스에서, 용기 디자인은 내마음은 콩밭에서 각각 분업

- 경주의 푸드앤디자인협동조합의 도시락은 지역의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과 생산자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재료로 만드는 로컬산

- 재료를 납품하는 농가들도 지역의 영세한 농가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

- 포천의 (주)행복은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정성스런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 사회적 기업

- '08년부터 이외에도 우리쌀로 만든 '쌀초아'라는 쌀과자를 개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 마련을 모색 중

- 직거래로 채소를 공급받는 성북슬로비, 무항생제 축산물을 고집하는 자연은, 유기농 반찬가게 동네부엌 도시락도 인기를 끌 것



프리미엄 디저트로 대접받는 우리 농산물

- 디저트, 제과제빵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업종으로, 국산 농산물을 프리미엄 소재로 내세우는 업체가 증가
 - 국내산 농산물(유기농 포함)로 차별화한 전략을 앞세워 일본, 유럽이 종주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디저트 시장에 영역을 개척
 - 수입 재료가 아닌 건강한 국산농산물을 쓴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
 - * 디저트 전문점은 아직까지 재료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임을 내세워 마케팅 소재로 이용
 - 서양음식인 롤케익, 빵, 아이스크림 뿐 아니라 팔빙수, 단팥빵 등 추억이 담긴 음식까지 다양성이 넓어짐



- 하라롤, 팔고당, 밀내음단팥빵, 소프트리 등이 젊은 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
 -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하라롤은 만드는 법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썼지만 재료는 100% 우리나라산
 - 주재료인 두유는 국산업체인 잔다리전두부, 밀가루 대신 100% 국산 쌀가루, 벌꿀은 선운산 벌꿀의 아카시아 꿀을 사용
 - 디저트 전문업체인 망고식스는 제주라는 지역 농산물로 특화된 식이바, 주스 등을 판매
 - * 제주산 농산물임을 강조하여 보리, 감귤, 녹차농축액 등이 사용되었고 주스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감귤, 머루를 100% 사용
 - 지난 2~3년 동안 설빙 등 국산팥을 이용한 빙수 중심의 업체가 주목받는데 이어 작년부터는 국산 수제단팥빵이 급부상
 - 밀내음단팥빵, 팔고당 등이 대표적이며, 서울로도 진출한 군산 이성당과 대전의 명가 성심당 등이 착한 먹거리로 부상
 - 국내산 벌집과 벌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소프트리, 강화도 고구마 전문카페 빙고 등도 인기가 상승
 - 소프트리는 국내 유기농우유와 양봉협회가 인정한 국산 꿀로 차별화된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건강하다는 느낌도 전달
 - 디저트카페 빙고는 외국음식 일색인 디저트 시장에 우리 고구마(강화도산)의 장점을 내세워 차별화



파치, 못난이들의 반란!

-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라 식료품비 부담이 늘면서, 겉모양은 못생겼지만 맛은 그리 차이 없는 B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
 - 소위 가성비(가격대비 품질의 수준)를 따지는 ‘가치소비’의 확산은 농산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(‘14.12, 마크로밀엠브레인)
 -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B급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‘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활동’이라고 판단
 - * B급 상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이미지는 합리적이고(73.9%), 현명하며(66.7%), 신중하고(64.1%), 똑똑한(63.2%) 등의 긍정적인 경우가 대부분
 - 향후 자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는 B급 상품 중 농식품은 중요 아이템이며, 주요 고객층은 30대와 전업주부가 될 것
 - * 향후 자주 이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B급 상품(중복응답) 중 ‘모양이 불품 없는 못난이 식품’과 ‘흠집이 있는 과일·채소’가 2, 4위를 차지

바람이 분다~, 일본의 B급 농산물!

- ▷ 농가 생산량의 20~30%에 이르는 규격외품 야채·과일은 기존 도매시장으로 유통이 쉽지 않아 자가소비하거나 폐기되던 것이 불황 속에서 판매가 급등
 - '12년 약 256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인 일본 로컬푸드의 메카, ‘메케몬 히로바(오사카 부근 와카야마현 위치)’은 B급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서부터 출발
 - 유기농업 운동을 이끌면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‘대지를 지키는 모임(大地を守る會)’에서는 '14년 규격외품의 야채 및 과일 등 15품목 시리즈를 발매('15.1.2, 헤럴드 경제)

- 취급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, 상품도 과일 중심에서 채소, 화훼 및 곡물 그리고 관행 농에서 친환경 농산물까지 확대
 - 파찌몰은 농가를 방문 할 때마다 한 아름씩 쥐어주던 못난이 과일을 사업으로 연계시켜 '14년 문을 연 전문 업체
 - * 과일뿐만 아니라 콜라비, 파프리카 등의 채소, 고구마, 장미, 서리태까지 포괄하고 있으며, 시작과 동시에 예산 사과가 완판(完販)될 정도로 인기

- 파머스페이스는 오프라인 카페에서 못난이 과일을 이용한 스무디, 주스, 차, 요거트 등의 디저트를, 온라인으로는 과일을 직거래
 - * '13년 부산광역시 예비 사회적 기업(오프라인 매장 '열매가 맛있다')으로 지정
- 이유물에서는 '못난이'가 된 사연을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연계시키는 등 소비자의 감성에 다가서는 시도가 활발
 - * 이외에도 옥션, 11번가, 위메프, 임박물, 농협a마켓 등에서도 상품 관련 별도의 카테고리 차지할 만큼 관심이 증가

		
파씨몰	파머스페이스(오프라인 매장)	이유물

행복을 주는 농업(Agro-healing)!

- 치유농업은 농업·농촌의 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·정서·심리·인지·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을 총칭
 - 일상의 경쟁에 지친 도시민들은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, 농업·농촌이 이 아픔을 보듬어 주기를 원함
 -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의 전공은 외과에서 정신과로, 소재도 치유 이야기로 변화해 현대인의 정신장애를 대변('15.1.22, 연합뉴스)
 - *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 분야에 지출하는 의료비(전체 중 3%)도 낮고, 정신과 의사 수(인구 1천 명 당 0.07명)도 부족한 상황
 - 치유농업의 핵심은 우리의 '농촌다움'을 이용하여, 국민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

- 치유농업의 사회·경제적 가치는 약 1조 5,599억 원이며, 세부적으로 환경 치유(48.3%), 식물 치유(32.7%), 동물 치유(19%)의 순
- 올해는 치유농업이 현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, 마을기업 등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
- 작년까지는 분위기의 조성 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던 기간
 - 경북 영주시는 소백산 12자락길의 풍광 과 소수서원, 부석사 등의 전통문화를 활용해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꾀할 계획
 -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'13년부터 6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했고, 수료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치유농업지도차 협동조합도 탄생
- 개인농가보다는 마을기업, 영농조합법인,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
 - 양양군 달래촌은 32km의 힐링로드, 착한식당 29호점 농가맛집, 몸마음치유센터(한의원과 찜질방)가 함께 패키지화된 마을기업
 - * 몸마음치유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, 중년여성의 자존감 회복,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
 - 농업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에 힘쓰는 즐거운 농장도 사회적협동조합을, 칠곡군의 동명치유농업인회도 마을기업을 준비 중



에그리테인먼트(Agriculture + Entertainment)의 진화

- 농업(Agriculture)과 오락(Entertainment)이 만나 만드는 ‘에그리테인먼트’는 도시인의 휴식과 재미에 대한 욕구를 채워 줄 것
- (농촌예술) 도심이 아닌 농촌의 미술관은 자연 풍광과 함께 예술이 탄생하는 곳으로, 도시민들의 잊힌 감성을 자극할 것
 - 영천의 **별별미술마을**은 걷는 길, 바람 길, 스무골 길, 귀호마을 길, 도화원 길 등 다섯 갈래의 행복길이라는 주제가 자리
 - * 오행의 순환 원리가 숨어있는 마을길을 따라 박물관, 전시관, 바람의 카페, 아트마켓 등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교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포인트
 - 기장군 **대룡마을**은 골목 곳곳에서 벽화와 어우러지는 조각품을 감상하면서 무인카페의 커피 한 잔, 국수 한 그릇 하기 좋은 곳
 - * 말 그대로 종업원이 없는 커피숍(Art in Ori)이 명물로, 추억의 LP판을 양껏 들을 수 있고,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로컬푸드를 살 수 있는 곳

도시민은 우리 농촌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아쉬워하는가?!

- ▷ 우리나라 직장인 1,743만 명 중 밤 9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은 27%에 이를 정도로 회사 생활은 ‘번 아웃(burn-out)’ 상태('14, 통계청, 마크로밀엠브레인)
 - 많은 직장인들은 사회적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휴식과 여행을 원함
 - * 계획하지 않은 여가시간의 희망 활동: 휴식(1위), 여행(2위), 영화 관람(3위)
 - 73.7%의 국민은 기존의 슬로시티가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에게 좋은 대안이라고 여기고 있으나, 취지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(55%) 응답

- 파주시 **헤이리**는 시인, 음악가, 작가, 건축가들이 함께 모여 집과 작업실, 미술관, 박물관, 갤러리, 공연장 등의 예술 공간을 꾸린 곳
 - * 마을의 이름은 후렴구에 ‘헤이리’라는 흥얼거림이 등장하는 논매는 소리(헤이리 소리)에서 따왔다고 함
- 성주군 **금수 문화예술마을**은 농촌의 폐교가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과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장으로 거듭난 마을

- 이외에도 문인화가와 서예가들이 모여 산다는 제주 저지예술마을, 도깨비가 예술을 한다는 궁뜰 도깨비 예술마을도 새롭게 부각
- * 도깨비 마을은 장수의 장안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예부터 도깨비들이 자주 출몰하던 곳으로 유명



- (팜 파티) '농가체험'에 '파티'를 더하여,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선사하는 팜 파티는 반응이 좋아 확산 추세
- 참새美자두농장 파티에는 손수 가족이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고, 자두를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이 필수
 - * 자두 이야기를 주제로 하며, 농장에서 만든 자두 동자액으로 만든 천연비누, 쪼물딱 건자두, 자두를 넣은 샌드위치도 즐길 수 있는 곳
- 청풍자연농원에서는 낮에는 단감을 따고 더덕을 캐면서 풍요로운 가을을 즐기고, 밤에는 마님의 청아한 가야금 소리를 감상
- 청정농원의 잔칫상에는 해남 밤호박, 산나물과 고구마를 먹고 자란 삼겹살(땅끝포크) 등 먹거리의 향연이 펼쳐짐
 - * 아이들과 함께 감자 캐기, 물고기잡기를 빼먹으면 두고두고 원망 들을 거리



팜핑(농가캠핑, farmping)이라 불러다오

- 도시민들이 자연에서 힐링(healing)을 하고자 하는 캠핑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며, 보다 색다른 방식을 원하게 될 것
- 국민들의 캠핑 경험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, 준비와 마무리 과정이 힘들다는 반응이 높은 편('14, 마크로밀엠브레인)
 - '13년 캠핑 경험은 33.2%이던 것이 '14년 37%로 증가하였으나 절반이상(54%)이 '고생스럽다'고 응답
 -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안락하게 캠핑을 즐기는 글램핑(glamping)의 경험은 전년 대비 9.6%가 상승

TV 프로그램의 변화로 보는 '농가 캠핑'에 대한 열망?!

- ▷ 아기(Baby), 미인(Beauty), 동물(Beast) 등 3B로 불리던 프로그램 소재가 최근 농사(Farming), 가족(Family), 외국인(Foreigner)로 변화('14.11.25, 서울경제)
 - '14년에는 KBS 귀농 예능 프로그램인 '사남일녀'를 시작으로 tvN의 '삼촌 로맨스', 농가에서 하루를 묵는 이야기를 담은 '삼시세끼'가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
 - MBC의 '아빠 어디가'를 통해서도 '아빠의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'과 함께 '농촌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모습'이 새삼 재조명을 받기 시작

-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맞물려, TV 예능을 통해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농가에서 팜핑(farmping)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
 - 충남 홍성군의 **용봉산 캠핑장**은 캠핑과 함께 봄에는 딸기, 여름 복숭아, 가을 대하, 겨울 군고구마 체험을 즐기는 상품을 출시
 - * 용봉산은 '작은 금강산'으로도 불리며, 주변에 **윤봉길, 김좌진, 성삼문**의 생가가 있는 천하의 명지
 - 충북 음성군의 **보라농장**은 럭셔리 텐트는 기본이고, 블루베리 따기에서부터 블루베리 소스로 만든 바비큐까지 대접
 - 경기 양평군의 **수미마을**은 87일간 열리는 '양평메기 수염축제'와 함께 뗏목과 레프팅도 즐길 수 있는 곳



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귀농·귀촌

- 정부정책에서는 귀농귀촌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농과 귀촌으로 나누어져 있음
- 귀농은 농업을 생업 또는 부업으로 하는 업의 개념이라면, 귀촌은 건강, 자연선호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농촌으로 정하는 삶의 형태
 - 귀농의 경우 20~30대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조기 퇴직한 40~50대가 뒤를 따르고 있음
 - * 2010년 761세대 → 2013년 5060가구(8배)로 증가율은 60대(12.6배)에 이어 두 번째로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
 - 귀촌은 은퇴세대가 대부분으로 자연이 좋다거나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의 이유가 비중이 높은 편

‘브라운 컬러’와 ‘고루유족’?!

- ▷ 브라운 컬러는 유럽 등에서 새로운 노동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대로서 대졸 이상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‘블루칼라(노동자)’ 직종에 뛰어드는 현상
 - 기존 노동자와 다른 이유는 육체노동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이윤을 내는 방식 때문으로 육체적 무력감과 분업화에 질린 직장인들이 몸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찾는 과정(서울대 김난도 교수)로 보기도 함
 - 그 속에서 고루유족(族)이란 영어 Go Rural in Youth의 발음 첫 글자만 따서 부르는 이름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사회적 이민을 떠나는 20~30대를 이르는 말

- 귀농인구는 '09~'12년까지 급증하다가 2013년 1만 923가구로 전년 대비 3% 감소하면서 주춤하였으나, 귀촌은 증가추세
 - '13년 귀촌은 전년대비 36% 늘어난 2만 1501가구로 귀농가구의 약 2배 가량의 증가세
-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품질도 매우 높아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의 활동도 활발
 -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'귀농창업자금 지원사업'과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사업이 있으며, 지자체도 별도 지원프로그램이 운영
 - * 농촌빈집안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들은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시세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것을 권장
 - 민간에서는 중앙과 지역일간지에서 별도의 귀농정보를 제공 중이며, 먼저 귀농한 선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크게 증가
- 귀농귀촌 성공사례가 늘어나면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
- 최근 귀농귀촌자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위해, 여건을 갖추고 귀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
- 정보의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있는 '귀농귀촌 홍보관'을 통해 공부하거나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시설 이용도 증가추세
 - * 지자체들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정과 세제지원을 담은 조례를 제정 하거나 전담팀을 운영



푸드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로컬푸드

-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, 유통·가공·외식이 결합하는 푸드시스템으로 변신할 것
 - '13년 완주군은 400억 원 이상의 매출, 1천여 생산자의 안정된 소득 확보, 새로운 일자리 500여 개를 만드는 성과를 거둠
 - 사업적 성공과 별도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'사회적 거리'를 단축시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 것이 큰 성과
 - * '08년에는 전북 완주군의 '약속프로젝트', '09년 강원 원주시 '그린스타트 네트워크' 등의 사업이 출범
 - 소농과 고령농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품목 소량생산, 소비자 반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운영 등 기존 체계와 차별화
 - 전문 운영팀을 갖추고 식탁에 오르는 주요품목 300여 가지를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협업
 - * 가공, 창업, 마을기업 등을 확대해나가며 타 지역 생산품(수산물)과 연계도 확장
 - 가공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가공센터와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까지 보유
 - 거점가공센터는 가공, 위생, 전처리, 포장, 조리 실습실을 갖추고, 80명의 3개 공동체의 조직원들이 180여개의 가공식품을 생산
 - 로컬푸드 레스토랑 '아하라'는 채식 전문으로 특화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으로 꾸려지는 중



- 김포군, 양평군 등의 로컬푸드 사업도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확대 추세
 - 기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와 농협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
 - 김포군의 경우는 체계적인 준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좋은 사례이며 '얼굴있는 농산물'이라는 주제로 상생세
 - 양평군은 지리적으로 메가시티(인구 100만 이상)인 서울의 배후 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정착
 - 서울 강동구의 경우는 로컬푸드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역 내 텃밭을 활용한 '싱싱드림'이란 로컬푸드 전문점으로 차별화
 - 대전, 광주 등의 광역시에서는 소비공동체와 생산공동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자 모색
 - 부정기적인 직거래 장터를 대신하여 농협, 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시도되고 있음
 - * 농식품부에서는 '14년 로컬푸드 직매장 23곳과 공동작업장 3곳 등을 신설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00여 곳 개설이 목표
 - 단기적으로는 지역축제의 차별화,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으면서 학부모의 요구가 높은 학교급식까지 확대될 전망
 - * 미국, 일본 등에서처럼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농업인의 지위가 생산자로 다시 격하되거나 급속한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



다시 세(勢)를 확장하는 도시농업

- '10년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한 도시농업에 2015년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
 - 민간에 비해 느린 행보를 보이던 정부도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'11년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
 - '11년 도시농업지원법, '12년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이 제정되어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
- * 농식품부의 '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(2013), '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'(2015) 등이 제정

새로운 도시농업의 모델, 수원 일월공원 '행복텃밭'

- ▷ 수원에 있는 일월공원(수원시 장안구 천천동)의 행복텃밭은 단순한 녹지공간이던 공원을 공동체적 생활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는 지역으로 탈바꿈
 - 공원에서 관리가 잘 안되던 땅에 속하던 곳을 김태현(인비트로플랜트 대표) 씨가 친환경 농법으로 가꾸어 보고 싶다고 수원시에 건의하여 시작
 - 해충을 쫓아주는 메리골드, 제라늄 등을 심고, 비료도 직접 만든 퇴비만 사용하는 등 친환경농법이 특징으로 휴식, 경관, 교육, 소통의 장으로 역할이 더 큰 것으로 평가

- 민간에 의해 운영되던 문래도시텃밭, 홍대텃밭다리, 씨앗들협동조합, 파절이, 향동에농장 등이 도시농업의 매력을 일반에 전파
-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텃밭의 면적은 '10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경작지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이 특징
 - '10년 도시텃밭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104ha였으나 '13년 558ha, 참여인원 76만 9천 명 정도로 크게 증가('14, 농식품부)
 - 텃밭의 유형도 도시 인근의 유휴지에서 도시 내의 유휴지, 아파트나 주택의 옥상, 공원 등으로 다양화
 - '14년 9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'12인의 도시농사꾼 퍼레이드'에서는 자택 옥상, 아파트 옥상, 베란다 등 다양한 텃밭사례가 발표

하늘에 씨앗을 뿌리다?, 옥상텃밭!

- ▷ 도시농업의 선진국인 미국, 캐나다, 일본 등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인 옥상을 이용하여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도입 예정
 - 미국 시카고의 윈디시티하베스트프로그램은 비어있는 옥상을 이용한 텃밭을 활용한 사례로 큰 상가 건물 하나라면 약 560평 정도가 사용가능
 - 시카고에 359개 옥상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텃밭의 작물만을 파는 전문매장, 레스토랑이 생기고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
 - 2007년 미국에서 학교교육에 텃밭운영이 포함된 이후 도심지역의 교육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저소득층 식품자급, 도시열섬효과 감소 등 부수효과가 계속 보고

□ 도시농업이 도시의 이미지와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국내 사례가 늘어나고 복지와의 관련이 있어 보급이 확산될 전망

○ 강동구청의 새로운 실험은 도시농업이 로컬푸드와 연결될 때 국내에서 실제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

- '10년 전국 최초로 '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제정, '11년 '친환경 도시농업 특구'선포 및 '1가구 1텃밭 운동' 전개

- '14년 인근 농가 40여 곳과 텃밭에서 수확한 지역 농산물전문판매장 '싱싱드림'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

- * 높은 품질과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,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개점 6개월 만에 10배 이상의 소비자 증가세를 보임

- 자체적인 세척장, 잔류농약검사장을 갖춘 매장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1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판매를 전담

- * 텃밭생산자의 경우 은퇴계층이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도시 내에서 친환경농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 것도 주목

○ 이후 로컬푸드에 관심이 높으나 경지면적 부족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대전, 부산 등 광역시의 주목을 받아 신사업모델로 부상

- 도시민의 만족도가 높고, 도심경관과 이상기후 재해경감, 열섬현상 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높게 평가

ICT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

- '14년 중반 차세대 기술로서 크게 관심을 모은 사물인터넷기술은 기존의 ICT 기술을 크게 강화시켜 농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
- 사물인터넷이란 사람과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물과 사물(컴퓨터)이 정보를 주고받고 동작하는 개념
 -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각종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환기, 가온, 관수 등 식물생육의 최적조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

사물인터넷이란?!

▷ 사물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으로 정확히는 '인터넷에 연결된 사물'이라는 의미

-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가정인 경우, 현관문이 사람얼굴을 인식하여 경비업체에 보내면 가입자의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면 문을 열도록 동작하는 것과 비슷
- 전자정보통신기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2015년 CES(세계소비자가전전시회)에서 가장 많은 기술이 출품되었으며 에너지, 로봇 등과의 통합기술도 선보임

-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기술과의 융복합에 의해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기술은 로봇, 재생에너지 등
- 초기에는 네덜란드 기술을 도입한 농장이 운영되었으나 국내기업의 참여와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의 연구도 실용화 단계
 - 경남 진주에서는 외부기상정보와 내부 환경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조정하는 스마트팜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량을 20% 증수
 - 관리시간도 3시간에서 10분으로, 관리비용도 27만원에서 1만 5천원 수준으로 절약
 - 경기 연천군의 태암농장은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사육사료 공급, 육성, 비육돈 출하 등의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성공
 -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엘시스와 유리아프소프트는 전남 순천 농특산물 유통조합, 순천대와 함께 특용 인삼 스마트팜을 개발

- 농진청에서 개발한 ‘수경재배를 이용한 청정수삼 생산기술’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최저비용, 최고효율로 생산하는 시스템

* 생산성은 20%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대비 10%이상 절감이 예상

□ SK, KT, LGU+와 같은 이동통신사들이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의 돌파구로 농업과 ICT기술을 융합한 사물인터넷 기술에 적극적

- SK텔레콤은 전북고창군에서 ‘스마트 장어 양식장’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장어양식 환경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이 목표

- 환경에 민감한 물고기 등의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실용화될 경우 폐사 등의 위험과 경영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

* SK텔레콤은 2014년까지 총 100개의 스마트팜을 지원

- KT에서는 강원 강릉시 **셋돌전원마을**에 원격 환경제어 솔루션을 갖춘 스마트 식물농장 시스템으로 표고버섯 재배를 실험 중

- 정부 귀농·귀촌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약 10평 규모의 식물공장 지분을 제공하고 스마트팜에서 나온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

* 스마트팜에서 나온 정보는 KT연구소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시 농가에 다른 지역 농가에도 적용하여 활용도와 시장성을 크게 높일 계획

- 농촌진흥청에서도 ‘10년 남극 세종기지, ‘11년 연구용 식물 공장을 개발한데 이어 스마트팜 기술도 곧 실용화 시킬 예정

- 정부는 ‘17년까지 600평 이하 소농 8,000여 곳에 보급할 예정으로 비용은 농가당 300~5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전망



SK이 지원하는 스마트팜

KT가 지원한 강릉 셋돌지구

남극 세종기지의 식물공장

[부록] 우리나라 농수축산식품 산업 통계

<p>전체 농수축산식품 (13년 금액: 원) 시장규모: 138.98조, 생산액: 122.09조, 수출액: 6.72조, 수입액: 23.60조 (12년 대비 증가율) 시장규모: 5.5%, 생산액: 6.4%, 수출액: -5.8%, 수입액: -1.8%</p>
<p>가공식품 (13년 금액: 원) 시장규모: 76.14조, 생산액: 72.06조, 수출액: 5.85조, 수입액: 9.93조 (12년 대비 증가율) 시장규모: 7.8%, 생산액: 11.7%, 수출액: 48.6%, 수입액: -1.2%</p>
<p>건강기능식품 (13년 금액: 원) 시장규모: 1.35조, 생산액: 1.04조, 수출액: 0.08조, 수입액: 0.39조 (12년 대비 증가율) 시장규모: 0.3%, 생산액: -1.0%, 수출액: 29.0%, 수입액: 8.8%</p>
<p>농림산물 (식용) (13년 금액: 원) 시장규모: 28.43조, 생산액: 26.50조, 수출액: 4.22조, 수입액: 6.15조 (12년 대비 증가율) 시장규모: 0.6%, 생산액: 0.01%, 수출액: -3.3%, 수입액: 0.2%</p>
<p>축산물 (식용) (13년 금액: 원) 시장규모: 20.39조, 생산액: 16.31조, 수출액: 0.20조, 수입액: 4.28조 (12년 대비 증가율) 시장규모: 0.1%, 생산액: 1.4%, 수출액: 26.0%, 수입액: -3.4%</p>
<p>수산물 (식용) (13년 금액: 원) 시장규모: 8.17조, 생산액: 7.23조, 수출액: 2.30조, 수입액: 3.24조 (12년 대비 증가율) 시장규모: -4.0%, 생산액: -6.0%, 수출액: -11.8%, 수입액: -5.4%</p>

* 자료: 식품의약품 산업동향 통계, 식품의약품안전처, 2014.11

RDA 인테러뱅
INTERROBANG

2011. 1. 12. 창간

발행인: 이양호

편집인: 이희삼, 조우석, 이동현

발행처: 농촌진흥청

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

전화 063-238-0676 전송 063-238-1768

인쇄처: 전우용사춘(주) 02-426-4415

ISSN: 2233-5056

발간등록번호: 11-1390000-002866-03

*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농촌진흥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*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